

# 젠더, 노동,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각성의 순간

## - 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丁七星)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

노 지 승  
(인천대학교)

### ❖ 국문초록

자본주의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기생은 위기감 속에서 경제적 구원자가 될 남성에게 의존해서 사는 처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와 자본주의가 부여한 변신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사회주의자 정칠성도 정치적 각성을 통해 그러한 변신의 기회를 활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정칠성의 정치적 각성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십여 년 간 기생으로서 경험했던 개인의 노동 체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1운동은 민족주의라는 외연을 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정칠성이라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낸 계기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직무 상의 역할 이외에도 순종적이면서도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 즉 초기 직업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젠더 위계와 젠더 권력 속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분노와 수치, 모멸감 등의 감정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감정들이 정칠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어떤 정치적 각성에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경험과 감정의 문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각성은 정칠성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언어는 정칠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언어였지만 그녀의 체험은 엘리트 사회주의 언어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엘리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넘어서, 하층민 여성의 삶이 새로운 감성으로 분할되고 등재되어 정치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주제어 : 정철성, 여성 사회주의자, 기생, 젠더, 노동, 감정, 정치적 각성, 3·1운동, 경제적 독립, 사회주의

## 1. 위기의 기생 혹은 기생의 기회

1923년 6월 서울의 유명 기생 강명화가 온양온천에서 쥐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강명화와 온양온천에 동행했던 그의 연인 장병천은 그 해 10월 연인을 따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한다. 이 사건은 1926년 가수 윤성덕의 현해탄 정사(情死) 사건과 더불어 식민지 시기에 대중들의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은 스캔들로 이후에 영화나 연극, 노래 등의 대중문화 텍스트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던 사건이었다.<sup>1)</sup> 강명화의 자살 이유로서 추정되는 것은 바로 연인이었던 장병천 집안과의 복잡한 문제 때문이었다. 장병천은 부호의 외아들이었지만 집안에서 내쫓긴 상황이었고 그가 집안에서 내쳐진 이유에 기생 강명화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명화의 유언도 “당신(장병천)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였다.<sup>2)</sup>

1920년대 이러한 정사 사건은 ‘정사’에 내재되어 있던 낭만성 혹은 애정 지상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1920년대 악마주의 작가로 불리는 임노월은 아예 정사를 찬미하는 극단적인 글을 쓰기도 하였듯이<sup>3)</sup> 정사는 일종의 사회적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1920년대 기생의 자살은 일간지에 흔하게 발견되는 사건 사고였는데 기생이 혼자 죽기도 하지 만 연인과 자살하는 경우도 흔하게 벌어졌다. 1920년대 초,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인 『개벽(開闢)』은 이들 기생들의 ‘정사’문제를 진지한 사회 문제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비참’과 ‘결여’를 동정하기도 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sup>4)</sup> 그

1) 자살로 마감한 강명화의 인생 이야기는 야담, 가요, 영화, 딱지본 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재료가 되어 식민지 시기 내내 대중들 속에서 유통되었다.

2) 「부호의 독자 장병천의 자살」, 『동아일보』, 1923.10.30.

3) 임노월, 「未知의 世界」, 『開闢』, 1921.6. 11쪽.

렇다면 기생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과 세상에도 연약한 女性의 몸으로 된 것을 비판하여 단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단발이 옳고 그른 것은 나중 문제이고 생각만은 동정할 여지가 있는 눈물겨운 생각이다. (...) 엇더한 남녀가 서로히 사랑하였다. 남자도 처자가 잇는 몸이요. 여자는 기생이었다. 남자도 세상을 비판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독약을 먹고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 두 곱부애 독약을 부었다. 두 남녀는 제각기 독약이 든 곱부를 드러마시었다. 5)

위의 인용문은 기생 잡지 『長恨』에 실린 기생 업산월의 「斷髮과自殺」이란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은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해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비판하여 기생이 단발(斷髮)을 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남자에게는 처자가 있었고 여자도 기생이라는 처지 때문에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음독하게 된다는 사연을 담고 있다. 당시 기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자살(自殺)’과 ‘단발(斷髮)’은 세상에 대한 그녀들의 절망을 표현하는 기호였다. 단발이 실연(失戀) 혹은 심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살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이들의 막다른 선택이었다. 강명화의 사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이 기생 자살의 원인으로 종종 지목되지만 이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생의 자살에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 즉 자존감의 훼손에서 오는 우울증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생들의 사랑 혹은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의해 긍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기생이 매춘업으로 취급받았던 사실에서 기인한다. 물론 기생 중에서도 예기(藝妓)와 창기(娼妓)는 제도상으로도 구별되었고<sup>6)</sup> 예기들 스스

4) 「學生論壇(上)」, 『開闢』, 1922. 4, 94쪽.

5) 嚴山月, 「斷髮과自殺」, 『長恨』 1927.1, 65~66쪽.

6) 기생(妓生)은 보통 노래나 춤, 악기 등에 기예를 제공하는 이들을 가리켰다면 창기(娼妓)는 이러한 기예가 없는 단순한 매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개항 이후 별다른 기예도 없이 매춘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하급 기생인 삼패(三牌)들도 많이 늘어났고 일본식 유락 문화가 들어 온 이후, 기생은 매춘업을 하는 창기(娼妓)와 변별 없이 취급되기도 했다. 총독부는 전국의 유녀(遊女)들을 예기, 창기 그리고

로도 자신들이 창기와 구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구별은 점차 사라졌고 기생조합인 권번(券番)에 소속되어 요릿집 등에 출장 다니는 이들을 단순한 성판매 여성인 창기와 구별해 줄만큼 사회적 시선은 세심하지 않았다.<sup>7)</sup> 가난한 집안 출신의 딸들로서 기생일이 자의로 선택한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타자로 취급되었던 기생들의 처지가 그들의 자살에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우울과 비판이 생겨나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시대적 트렌드로서 낭만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기생일’은 가난한 소녀들이 선택하게 되는 일종의 경제적 탈출구였다. 1930년대 초 기준으로 시간 당 30분에 65전 정도였던<sup>8)</sup> 기생의 임금이 2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한 여공의 수입(일당 60전 정도)<sup>9)</sup>에 비해 높았다는 점, 또한 성공한 일류기생의 경우 중류 이상의 생활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임금의 측면에서만 보면 기생일은 가난한 계급의 소녀들에게는 꽤 경쟁력 있는 직종이었다. 그렇지만 대개 10세 이전에 기생 양성소에 들어가는 이 어린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기생일을 선택했을 리 없다. 즉 기생이라는 직업은 엄밀히 말하면 가난한 소녀들이 스스로 선택한 탈출구가 아니라 가난한 부모들이 딸을 이용한 탈출구였다.<sup>10)</sup> 많은 기생 서사에서, 기생이 자신의 부모를

---

작부로 분류하고 관리했는데 예기가 일류 기생을 가리킨다면 창기와 작부는 각각 이류, 삼류의 유녀들이었다. 「全朝鮮 藝娼妓 점차로 증가」, 『매일신보』, 1930.9.1.

7) 1910년대 일패, 이패, 삼패 등 기생의 등급과 관련해서 기생 집단 내부의 갈등도 존재해 있었다. 애초에 기생과 창기를 구별하여 관리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었지만 1910년대 기생 조합인 권번이 본격화된 이후 일류 기생과 창기와의 구별은 점차 희석되어 갔다. 근대 기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2004.6; 서지영, 「식민지 기생연구(1): 기생집단의 근대적 재편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권 2호, 2005.

8) 가와무라 미나토, 『말하는 꽃-기생』, 유재순 역, 소담출판사, 2001, 179쪽.

9) 1929년경 조선인 공장 노동자 남성은 약 1원의 일당을, 여성 노동자들은 약 59전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조기준 외, 『日帝下の 民族生活史』, 민중서관, 1971, 437쪽.

10) 앞서 자살한 강명화의 경우 1900년 평양에서 출생했고 11세에 동기(童妓)로 나선 뒤 1917년 서울로 상경하여 대정권번(大正券番)의 소속된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딸의 기생 영업에 깊이 관여했고 딸을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서구, 「강명화 가련의 일대기」, 『세대(世代)』, 1972.11, 200쪽.

원망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는 이들에 대해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분명히 기생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더구나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 언급되던 ‘기생철페론’은 기생을 보건과 위생, 가정생활의 적(敵)으로 지목하여 그들의 존재를 죄악시했던 논의인데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꾸준히 지속되었기도 할 정도로<sup>11)</sup> 기생은 사회의 악으로도 치부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확실히 기생은 매우 ‘억울한’ 이들이었다. 스스로 기생일을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생들의 파토스를 소위 식민지 조선의 초기 여성해방론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다음은 강명화의 자살 사건에 대한 나혜석 논평의 일부이다.

지금 조선 기생계의 일반 정신이 이러하다. 그 중에 총명한 자면 자일수록 자기의 그 노예적 생활, 비인도적 생활에서 약출하여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다운 생활을 해 보려는 이상이 있고 실행을 하려 든다. 그리하여 머리 올리고 구두 신은 여학생만 보면 다 선이고 다 미이며 일부일부의 신가정 생활을 볼 때는 재미가 깨가 쏟아질 듯싶고 행복이 무한량할 듯싶게 보인다. 그러할 때 자기 몸을 돌보면서 모든 것이 악이요, 추이며 지옥불에 떨어져 허덕허덕하는 듯싶다. (...) 강씨의 금번 자살의 원인도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즉 개인적 생의 존엄과 그 생을 전개하여 갈 역할의 풍부한 것을 자신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이상이요, 그 생의 전부를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일체 행위가 행복이요, 만족인 것을 일찍이 자각하였던들 종종 있는 저항력이 결핍한 자들이 경우의 압박에 불감하여 생활 의지의 강욕을 실행하고 일신의 순결을 보존키 위하여 스스로 사를 촉박하는데 불합하였을 뿐 아니라 엄열적 생존욕, 분투, 노력심이 우심우가하였을 것이다.<sup>12)</sup>

11) 제씨(諸氏), 「이상적 가정제 기생철페론」, 『동광』, 1931.12.; 한청산, 「기생철페론」, 『동광』, 1931.2 기생철페론에서 기생은 이상적 가정 제도 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철페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었는데 남성의 방탕을 초래함은 물론 처첩제, 이혼의 부자유, 여성에게만 정조가 강조되는 편무적 정조관, 공장제도와 함께 가정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2) 나정월(나혜석), 「강명화 자살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3.7.8.

1910년대 교육받은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집 개나 일반이지요”<sup>13)</sup> 라고 당차게 외친 나혜석의, 기생 강명화의 자살에 대한 논평은 매우 가혹하다. 총명한 기생일수록 자신들의 노예적 생활을 깨닫고 여학생과 일부일처제의 가정부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부러움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의식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자살의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나혜석은 강명화가 생존욕구와 노력, 분투 등이 부족했음도 말하고 있다. 1910년대 동경 유학생 사회에서부터 이미 유명한 여자 유학생이었고 『여자계』를 창간한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이 볼 때 강명화는 삶의 의지가 박약한 기생이었을 뿐이다. 이 글을 쓸 당시 나혜석은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은 후 1923년 1월에 자신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과정을 서술한 「모(母)된 감상기」를 썼고 만주 부영사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만주에 살고 있었다.<sup>14)</sup>

앞서 인용된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명화에 대한 나혜석은 기생 집단에 대한 공감은커녕 동정이나 연민도 보이지 않는 다소 냉정한 입장을 취했다. 그렇다면 나혜석의 이러한 코멘트는 비판(혹은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명화의 죽음 자체나 이에 대한 나혜석의 코멘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나혜석과 강명화로 각각 대표되는 상층계급 여성과 하층계급 여성 사이의 계급적 물이해가 있다는 점이다. 나혜석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동경에서 미술 공부를 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었고 평양 출신의 강명화는 11세에 동기(童妓)가 되어 부모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13) 나혜석, <경희>, 『여자계』 2호, 1918. 소설 <경희>는 동경에서 발간된 『여자계』 2호에 발표되었다. ‘경희’라는 허구적인 인물을 설정한 소설이지만 집안으로부터 결혼의 압력을 받고 있는 동경 유학생 ‘경희’는 당시 동경에 유학 중이었던 작가 나혜석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남편 밥을 그대로 얻어 먹는 것은 개나 일반이다”는 학업을 중단하고 결혼하라는 부친에 대한 경희의 항의이다.

14) 나혜석은 1923년 당시 만주 부영사가 된 남편을 따라 만주에서 살고 있었고 의열단 활동에 모종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689쪽 나혜석 연보 참조)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는 ‘백결생’이라는 필명의 남성 논객과 논쟁을 벌인 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있던 하층민 여성이었다. 당시 기생의 수입은 천차만별이었지만 30년대 초를 기준으로 하면 유명 기생의 경우 월 수입이 몇 천원에 이를 정도였음을 감안해 볼 때, 장안의 최고 유명 기생인 강명화의 수입 역시 1920년대 초임을 고려해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위신 이었고 기생은 수입과 상관 없이 사회적으로 대접 받는 계층의 여성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태어나 한번도 타자로서의 대접과 시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혜석이 강명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한 나혜석을 비롯한 교육받은 신여성들이 기본적으로 1910년대까지 지식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계몽주의자들이었던 만큼, 자신을 스스로 선각자로 자부했던 그들이 ‘우매한’ 조선민중을 공감과 동일시의 태도가 아니라 시혜와 계몽의 시선으로 보았던 것에도 분명 그 이유가 있다.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계급이 다른 여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몰이해는 여성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며 이 글에서 초점화할 정칠성(丁七星)의 처지와 활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 II. 감정과 각성: 기생에서 사회주의자로

강명화를 자살로 몰아넣은 기생들의 우울증과 그들의 하소연은 기생들의 잡지인 『장한』에도 잘 드러나 있다.<sup>15)</sup> 이 잡지에 실린 기생들의 글을 압축하자면 ‘인간으로 대접해 달라’는 요구로 귀결될 수 있다.<sup>16)</sup> 기생들의 이야기-기생들 스스로의 이야기이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한 기생의 이야기든, 기생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애화(哀話)’의 형식을 띠고 있다. ‘애화’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자본주의와 근대는 기생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우울과 비참함을 안겨주고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 기생은 ‘신분’이었지만 근대화된 사회에서 기

15) 1927년 1호와 2호 간행으로 그친 잡지로 기생을 필자와 독자로 호명하고 있다. 이 잡지의 편집인 겸 발행인은 김보패(金寶貝)라고 되어 있지만 작가 최서해가 편집을 맡았다고 전해진다.

16) 2호까지 간행된 이 잡지에 담긴 기생들의 희망사랑은 대개 남성 고객에게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손님이라면」(홍도 외, 「내가 만일 손님이라면」, 『장한』 1호, 1927.1, 61~64쪽)라는 제목의 글에는 ‘差別없이 對하겠다’ ‘普通人間으로 대해야 주었으면’, ‘同情으로써 대하겠다’는 기생들의 요구가 실려 있다.

생은 ‘직업’ 그 가운데서도 계약이라는 자발적 형식을 통해 유흥을 제공하는 서비스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기생이 공장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대접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고 기생들 스스로가 외쳤던 ‘기생도 노동자다’<sup>17)</sup> 라는 주장이나 문제제기는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기생은 천민 신분이기에는 했지만 조금 특별한 천민 즉 양반의 파트너로서 글을 안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천민이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자본주의가 안겨준 형식적 평등은 기생들로 하여금 돈을 가진 누구에게도 유흥을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 즉 양반남성뿐만 아니라 ‘돈’을 가진 모든 남성에게 유흥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 이들 기생집단과 백정 단체인 형평사(衡平社)와의 갈등은 이러한 형식적 평등이 기생 집단에게 어떤 종류의 새로운 박탈감을 안겨 주었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 기생과 마찬가지로 전근대 사회에서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차별 철폐를 외치며 1923년 그들의 정치적 단체인 형평사를 발의했고 형평사 발의 대회에 여흥을 위해 기생들을 불렀으나 모든 기생들이 이를 거부한 바 있었다.<sup>18)</sup> 전통적으로 양반들을 상대로 해왔던 기생들이 천민인 백정을 고객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다. 1922년 백정들과 함께 야유회를 나간 9명의 기생들을 기생조합이 만장일치로 폐업시킨 사례도 바로 그러한 자존심의 표현이었다.<sup>19)</sup> 형평사와 기생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 지속되어 1927년 전주 형평사에서 전주권번의 기생들을 불렀을 때 기생들이 응하지 않자 전주 형평사는 전주권번을 상대로 “용서치 않고 박멸을 계획한다”고 결의를 하기도 했다.<sup>20)</sup> 이러한 일련의 형평사와의 사건들을 통해 신분제 철폐가 ‘모든’ 남성을 상위의 계급에 위치하게 혹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에 대해 젠더의 권력 상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함으로써 남성들의 젠더 권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기생은 우울이라는 파토스를 지

17) 전난홍, 「기생도 노동자다-그가?」, 『장한』 2호, 1927.2.

18) 「형평사 발기회」, 『동아일보』, 1923.5.12.

19) 「대구 기생 풍파」, 『매일신보』, 1922.5.11.

20) 「전주형평사원 대분개」, 『동아일보』, 1927.1.22.

닌 채 위기감 속에서 살거나 혹은 경제적 구원자가 될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아니다. 기생 운명의 이중성이 있다. 자본주의가 준 새로운 기회는 그들로 하여금 변신할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신분이 형식적으로 철폐된 사회에서 경제력을 가진 일부 기생은 변신할 기회를 가졌고 사회주의자 정철성도 바로 그러한 변신의 기회를 누구보다 잘 활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자본주의 사회, 근대화된 사회에서 모든 기생들이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변신을 한 기생은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소위 ‘사상기생(思想妓生)’<sup>21)</sup>으로 불리는 사회 활동가로서의 기생의 변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했다. 첫째 상대적으로 기생에게 허용되었던 개방된 인간관계가 이들 변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매일신보』에 실린 다음의 기사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 세상의 부녀자 중 제일 사람 냄새를 많이 맡고 지내는 여자는 아마 기생일 것이다. 만나 보는 사나이로 보아도 같은 자가 아니라 신분, 직업, 경우, 성격이 다른 자라, 나날이 만나보고 지내며 다달이 사귀어 지내는 터인즉 기생에게 주는 영향이야말로 막대하다고 하겠다.”<sup>22)</sup> 이와 같은 기사가 암시하듯, 기생들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는 당시 평균적인 여성의 범위를 넘어섰고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그들로 하여금 변신을 가능하게 한 분명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역시 기생이었던 현계옥이 의열단에 투신하게 된 것도 독립운동가 현정건<sup>23)</sup>을 만나 그의 연인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들은 최초로는 기생과 남성고객의 관계로 만났다는 점을 여기에 적절한 예(例)를 제공한다.

둘째, 이들 기생들은 여성으로서 가부장제의 권력 아래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엄격한 품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초기

21) 사상기생은 당시에 일명 사회적 의식에 눈을 뜬 사상적으로 각성된 기생을 일컫는 말이다.

22) 「정신적으로 覺醒하는 기생 사회의 신경향」, 『매일신보』, 1920.4.6.

23) 소설가 현정건의 친형이기도 한 현정건(1887~1932)은 이동휘가 리더였던 상해 고려공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상해에서 체포되어 국내에서 옥고를 치르다 1932년 출옥 후 사망했다. 그와 기생 현계옥과의 사랑은 당시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유명했다. 한편 현정건의 구식 아내 윤덕경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을 따라서 죽는 ‘순종(殉終)’을 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교육의 필요성과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집안에 유폐된 여성들을 집밖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거리에 등장하게 된 교육받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들의 패션과 품행은 늘 화제에 오르곤 했다. 특히 1920년대 이후 여학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오히려 여학생들에게 품행을 강요하는 시선의 감옥이 되었다. 1910년대 즉 한일합방 후 본격적으로 늘어난 ‘여학교’들은 여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여학생들의 품행에 대한 강한 규율을 강제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단속하기도 했다.<sup>24)</sup> 그러나 기생은 여학생들에 비해 새롭게 정비된 근대적 젠더 규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즉 애초에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로서 가부장제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기생이었던 만큼 역으로 ‘보호’를 가장한 규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역설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생은 당시 신(新)지식인들 사이에서 추창되었던 일부일처제와 같은 부르주아적 도덕률의 외부에 있었다. 즉 기생에게 품행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행동이든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다.

셋째는 바로 기생의 경제력이다. 물론 모든 기생이 부유한 것은 아니었고 부모나 유부기(有夫妓)인 경우 남편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생들의 수입은 개인의 수입이라기보다는 가족임금경제 하에서 가족에 종속된 수입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25)</sup> 『매일신보』 1924년

24) 1920년대 여학교에서는 풍기문란을 이유로 교사들이 모든 편지를 검열하고 심지어는 여학생이 외출할 때 보호자와 동반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25) 산업화 이전, 여성의 노동은 가구에 필요한 노동력이었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임금을 위한 노동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무감에 강하게 매어 있었다. 서구에서도 딸은 가족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고 특히 가난한 농촌 지역의 딸들은 부잣집의 하녀로 들어가거나 도시의 공장 노동자 혹은 매춘일을 하면서 가족경제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루이스 A. 테일러·조앤 W. 스코트, 『여성·노동·가족』, 김영·박기남·장경선 역, 후마니타스, 2007, 154~171쪽) 식민지 한국의 상황도 서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기생이든 여공이든 여급이나 타이피스트이든 딸들의 취업은 모두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였고 그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 식민지 시기 직업을 가진 여성 즉 ‘직업부인(職業婦人)’은 곧 가난한 가정의 딸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였다. 노지승, 『유혹자와 희생양』

2월 2일부터 2월6일까지 ‘평양일기자’가 쓴 기생 ‘채금홍(蔡錦紅)’의 이야기도 바로 기생의 수입이 가족에 종속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채금홍도 가난한 집안의 딸로 부모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14세에 기생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지만 딸이 기생일을 그만두길 원치 않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sup>26)</sup> 이밖에도 실화가 아니라 소설이지만 작가 이선희의 소설 <매소부>(『여성』, 1938.1)의 등장인물인 기생 채금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생들의 우울증의 한 요인은 바로 기생일을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 경제에 예속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특성이다. 기생들이 독서와 영화관람과 같은 문화 소비를 통해 나름의 지성을 갖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sup>27)</sup> 각종 구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sup>28)</sup> 바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기생은 나름 변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변신은 ‘경제력’을 필요로 하거나 변신의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다. 특히 3·1운동은 기생들의 변신에 어떤 계기를 부여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어쩌면 기생의 정치적 변신을 가능하게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었을 3·1운동은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누구든지 국가와 민족을 말하고 흥분할’만큼 ‘정치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sup>29)</sup> 정철성은 물론 정중평과 같은 직업 부인 출신의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한국 근대소설의 여성표상』, 예음, 2009, 제2부 5장 직업여성의 등장 참조.

26) 평양일기자, 「평양기생 채금홍」, 『매일신보』, 1924.2. 2~6.

27) 기생들의 소설, 영화 소비에 대해서는 노지승, 「식민지 시기, 여성관객의 영화 체험과 영화적 전통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2010.2 참조.

28) 기생들이 구제활동은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두드러지는데 그 방식은 기부를 하거나 의연금을 모으거나 자선 콘서트를 여는 것이었다. 다음은 1934년 여름 수해가 났을 때의 기사들이다. 「인천권변 기생들도 의연금 모집 활동」, 『매일신보』, 1934.8.; 「전주기생, 災民 동정 50여 원 각출」, 『매일신보』, 1934.9.14.; 「평양 기생들의 600원 기부」, 『조선중앙일보』, 1935.2.1.; 「평양 기생들의 꽃다운 동정금」, 『조선중앙일보』, 1934.8.30.

29) 草土, 「현대여류사상가들(3)-붉은 연애의 주인공들」, 『삼천리』, 1931.7, 18쪽

식민지 시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민중들이 참여한 3·1운동은 국권회복 운동만으로 단순히 수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시위대 틈에서 민중들이 부르는 ‘만세’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다는 대의 명분뿐만 아니라 일종의 유토피아 즉 새로운 자아와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sup>30)</sup> 그만큼 3·1 운동은 민중들의 광범위한 각성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생들의 변신과 각성은 이들이 여성인데다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1운동 당시의 기생들이 참여한 소요 사건은 해주, 통영, 전주 등 전국에 걸쳐 있었고 일간지들은 이들의 만세운동 참여와 공판을 기사화했다.<sup>31)</sup> 수원 기생 김향화(金香花)가 주도한 자혜 병원에서의 만세 운동, 해주기생 김월희(金月姬), 문월선(文月仙) 등이 6개월 실형을 언도 받은 해주 읍내의 기생 만세 운동, 패물을 팔아 기생들과 상복을 나누어 입고 시위를 벌인 통영 기생 정막래(丁莫來), 이소선(李小仙) 등이 그 주역이었다.<sup>32)</sup> 이들의 활동은 국권회복 ‘독립운동’의 외피를 쓴 것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울분과 한(恨)의 표현이자 그리고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각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운동 즈음 당시 대정권번(大正券番) 소속 기생으로 있던 정칠성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깊은 뜻을 모르나 鐘路 네거리에 서서 젊은 가슴은 흥분에 넘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라다닌 적이 있다.”<sup>33)</sup> 같은 시기, 훗날 사회주의자가 된 이로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부(看護婦)이자 아이가 딸린 소년과부 23세 정종명도 3·1운동 시위대 틈에 끼어 있었다.<sup>34)</sup> 3·1운동 당시 각각 다른 시위대에 있던 정칠성과 정종명은 이로부터 몇 년 뒤인 1924년 여성사회주의 단체 여성 동우회(同友會)의 멤버가 된다. 이러한

30)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 『한국학연구』 38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8, 208쪽.

31) 『매일신보』 1919.3.17.; 1919.4.5.; 1919.4.24.; 1919.6.20; 1919.7.1. 이 일자의 신문에는 기생이 연루된 만세 사건이 기사화되어 있다.

32) 3·1운동 당시 이들 기생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이동근, 「1910년대 ‘妓生’의 존재 양상과 3·1 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집, 2013)에 잘 정리되어 있다.

33) 「저명인사일대기」, 『삼천리』, 1937.1, 40쪽.

34) 정종명의 삶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꽃메, 「일제강점기 산파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대한의사학회, 2012년을 참조하였다.

변신의 과정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부였던 정종명보다 정철성의 변신은 물론 더 드라마틱하다. 정종명은 자신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직업을 가졌던 그녀의 경제력이 가난한 활동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철성의 경우는 달랐다. 그녀는 사회주의자로의 변신에 걸맞게 기생이라는 본래의 생업을 버리고 다른 생업을 찾아야만 했다.

3·1운동을 즈음한 정철성의 변신은 당시 기생 변신의 전형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1897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철성은 8세에 동기(童妓)가 되었다. 동기 시절부터 시조(時調)에 재능을 보였고 기생이 곧 이후 그녀는 시조, 가야금 산조, 병창 등 특별히 노래를 주특기로 삼았다.<sup>35)</sup> 그녀는 자신이 아주 어릴 적 기생 노릇을 동경했다고 고백한 바 있지만 8세의 정철성을 기생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부모였다는 점에서 그녀가 기생이 된 계기 역시 가족의 생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녀는 이후 경성으로 올라와 대정권번 소속의<sup>36)</sup> 기생으로서 두세 곳 명문가의 소설 노릇을 하기도 했다.<sup>37)</sup>

당시의 기생들이 연극이나 영화(활동사진) 그리고 소설책 읽기 등의 취미 생활을 하였듯이 정철성이 기생 시절부터 영화나 소설책을 탐닉해왔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활동 사진이나 소설 중에서 외국 여자들이 말을 타고 전지(戰地)에 나가 적군과 싸우는” 활달한 모습에 감화되어 남복(男服)을 하고 말을 댔다는 이야기는<sup>38)</sup> 비록 영화나 소설을 통해 형성된 판타지이기는 하지

35)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유명 기생들을 소개한 아오야나기 고타로(靑柳綱太郎)의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1918)에 정금죽(정철성의 기명)의 나이와 기예 그리고 소속이 소개되어 있다.

36) 1장에서 언급했던 기생 강명화도 1917년경부터 경성의 대정권번 소속이었다. 정철성과 강명화 두 사람이 친분 관계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같은 권번 소속으로 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한 정철성과 같은 나이였던 기생 현계옥(1897~?)도 당시에 최고 유명 기생으로 훗날 의열단 단원이 되는데 현계옥은 정철성과 마찬가지로 대구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기생으로서 정철성과 현계옥이 역시 친분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1910년대 후반 기생들의 출신지는 서울, 평양, 대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 점은 정철성, 강명화, 현계옥의 출신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37) 정철성의 20세 이전의 이야기는 『삼천리』 1937년 1월에 실린 「저명인사일대기」에 정철성 본인의 회고를 통해 기술되어 있다.



『조선미인보감』(1918)에 실린 정 칠성(기명 정금죽)의 사진. 20세기

만 그녀가 기생이 아닌 다른 모습의 자신을 꿈꾸고 있었고 이러한 판타지가 이후의 변신에 큰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에 기생 사회에서는 승마 열풍이 있었고<sup>39)</sup> 장안의 일급 기생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시하듯 승마 구락부(club)에서 말을 타고 호화롭게 경성 시내와 교외를 누비기도 했다. 그러나 기생 금죽(琴竹, 정칠성의 기명)은 외적으로는 호사스러움을 누리며 이를 과시했지만 정작 그의 내면에는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의식은 3·1운동 시기 시위대를 따라다니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이러한 역동적인 ‘감정’이 거시적으로는 3·1운동 그리고 미시적으로 정칠성 개인의 변신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프랑스 혁명이나 노예제 철폐 등의 서구의 정치적 변혁에서도 감상주의(sentimentalism)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감정’은 분명 정치적 역할을 갖고 있다.<sup>40)</sup> 감정이나 감상은 분명 그것을 느끼는 주체로 하여금 위감을 느끼게 하고 과거와의 단절과 변화를 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정칠성의 감정 역시 이러한 정치적 효과를 내장한 것이었고 바로 그 감정은 다름 아닌 십 여년 간의 노동경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 감정은 기생이라는, 특별하지만 불안정한 자기 정체성으로도 설명되지만 간호부였던 정종명의 변신에서도 암시되듯이 당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부인(職業婦人)’들이 공적 사회에서 처하곤 했던 곤경과 연결지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서로 직업상의 차이는 있지만 1920년대 대표적인 여성 사회주의자인 정칠성과 정종명이 모두 직업을 가진 여성들 즉 직업부인이었

38) 「義憤公憤心膽俱爽 痛快!! 가장痛快하였든 일(설문)」, 『별건곤』, 1927.8, 58쪽.

39) 「화류계의 기마열-말 잘 타는 기생」, 『매일신보』, 1918.3.5

40) 윌리엄 M. 레디,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김학이 역, 문학과지성사, 2016, 7쪽.

다는 점은 주목된다. 여성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등장한 이들은 직업상의 직무 이외에 어떤 감정상, 정서상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그것은 순종적이면서도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적인 서비스와 유흥을 제공하던 기생은 물론 간호부에게도 의사에게는 순종하고 환자를 친절하고 공손하게 돌봐야 한다는 강박이 사회적으로 주입되었다.<sup>41)</sup> 그리고 이는 기생, 간호부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부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했다. “부녀는 어디까지든지 부녀다워야 할 것이니 남자와 같이 사무를 보는 사람이라도 부녀로서의 태도와 예의를 굳게 지켜야 될 것이며 부녀는 까딱하면 마음이 좁은 까닭에 그것이 화근이 되는 일이 있으니 직업을 가진 부인은 더욱 마음을 넓게 먹어서 그날그날 유쾌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sup>42)</sup> 물론 이러한 요구는 남성 상사, 동료, 고객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즉 직업부인들은 직장 내에서 남성들의 밑에서 예의와 아량을 갖추며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덕목들이 요구되었지만 당시의 거의 대부분의 직업부인들이 실제로 남성 동료, 상사 혹은 고객의 횡포를 경험했을 정도로<sup>43)</sup> 직업부인들은 남성들에게 동등한 동료로서 존중되지 않았다. 그것은 근대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젠더 권력과 성적 불평등 때문이기도 했지만 식민지 시기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하고 남편이나 오빠나 아버지 등 그녀들을 보호해 줄 힘 있고 능력 있는 가부장이 없음을 의미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 공적 세계에서 직업부인은 남성들이 어떻게 대우해도 괜찮은 정도로 만만한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았고 단지 직업 부인이 처할 수 있는 ‘애환’ 정도로 취급되었다.

41) 식민지 시기 간호부들은 미혼의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부가 봉사와 친절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공손함과 순종이 요구되었다. 이는 의사와의 관계에서도 요구되었고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요구되었다. 간호부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마음가짐과 품성이었다. 이꽃매, 『한국근대간호사』, 한울아카데미, 2002, 149~155쪽.

42) 「직업부인들이 주의할 여러 가지 조건」, 『동아일보』, 1927.12.4.

43) 「직업부인의 고통과 불평」, 『동아일보』, 1927.5.6.

점지않고 신사랍시구 하는 분네들이 술이 얼근이 취하면 지나가다가 담배를 사자고 야단입니다. 여기는 담배파는 데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성냥 좀 달라고 아니꼬운 눈을 흘깁니다. 사람이 기가 맥혀서! 그러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잇든 성냥을 꺼내가지고 담배 불을 부치고 「히야카시」를 하고 나하니 새해부터는 이런 사람이 없어지라고 축수합니다. 그런 낭반은 특히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해서 먹구 사는 직업부인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sup>44)</sup>

남성들의 횡포에는 성적 회롱과 추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위의 인용문은 당시 ‘가소링 걸’로 불리던 가솔린 보급소 여직원의 신년 바람 중 일부이다. 이들 여성들은 ‘히야카시(ひやかし)’라고 완곡하게 표현되는 성회롱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여성들이 처음 진출하던 서비스 직종이외에도 공장과 같은 생산직 여성에게도 이러한 성회롱과 추행은 가혹했는데 여공들의 경우 공장 감독과 남성 동료들의 성회롱과 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퇴근 시 몸수색을 당하는 등의 일을 겪었다. 연초 공장에 다니던 한 여공은 이러한 일들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자신들이 동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연초회사 갈보’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sup>45)</sup>

식민지 조선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눈에 띄게 많아진 시기가 1920년대 후반부터였음을 고려해 볼 때 정철성이나 정종명의 경우는 이보다 약 10년 정도 앞선 1세대 직업부인이라 할 만하다.<sup>46)</sup> 즉 정철성과 같은 기생들의 정신적 각성은 기생들이 처해있던 사회적 곤경 그리고 3·1 운동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훗날 10년 후 대규모로 등장하게 된 직업부인들의 곤란을 이보다 앞서 겪었던 정황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가난한 가정에서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우한’ 이들은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 젠더 위계와 젠더 권력 속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분노와 수치, 모멸감 등의 ‘감정’과 싸워야 했던 것이다.

44) 「신여성의 신년 신념사」, 『동광』 29, 1931.12, 75쪽.

45) 「직업부인이 되기까지-부모가 어찌업나」, 『동아일보』, 1929.11.3.

46) 식민지 조선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직업부인(직업여성)들이 눈에 띄게 등장하고 이들을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말부터이다.

이러한 ‘감정’은 서구의 프랑스 혁명에서도 입증되듯이 이념적 각성에 이르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여자도 인간이다’,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압제를 받고 있는 무산계급이다.’ 등등 1910년대부터 사회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여성의 ‘각성(覺醒)’들은 모두 어떤 감정들 특히 빈민과 고통을 그 최초의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925년 11월 개벽사 간행의 『신여성』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여성이 우리는 감정을 살리자. 빈민을 일으키자. 또 고통하자 여기서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이러한 권두언(卷頭言) 다음에는 여성 사회주의자 허정숙의 글 「우리 여성의 빈민을 논하여-여성의 빈민의 해결책」이 실려 있었다. 이러한 감정의 일깨움이 정치적 각성으로 가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말한 것은 허정숙이었지만 이러한 각성으로 가는 빈민을 삶으로서 보여준 이는 바로 정철성이라 할 수 있다.

확실히 정철성은 ‘감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념적 각성에 이를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생들이 정철성과 같은 변신과 각성을 이룰 수는 없었다. 정철성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졌던 강명화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각성과 자살은 거의 한 끝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훗날 삼천리사가 정철성에게 ‘정사(情死)와 자살’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그녀는 “情死와 自殺은 나의 사상상, 의식적으로 절대 피할 것이다”<sup>47)</sup>라며, 질문을 받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한 것은 바로 자살과 각성이 감정이라는 동일한 원인을 지닌 완전히 다른 결과라는 점을 그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 III. 조직의 시대와 정철성

3·1운동 이후 정철성은 당시 기생들의 심경 변화를 상징하는 ‘단발(斷髮)’을 한 후 일본으로 떠난다. 정철성은 두 차례 일본 유학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도일(渡日)은 1919년부터 1923년 상반기까지이며 두 번째 도일은 1925년

47) 「설문」, 『삼천리』, 1930.1.

상반기부터 1926년 초까지이다. 첫 번째 도일 이후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칠성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면 정칠성은 1차 일본 유학 후 서양에 가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타이프라이터를 배웠다. 이러한 정황상 3·1운동으로 무언가 각성되어 기생일을 그만 두었고 일본 유학을 떠났지만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20년대 초 다이쇼 시대의 일본에는 사회주의의 열풍이 불고 있었고<sup>48)</sup> 세계적으로도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사회주의의 영향이 전세계 지식인 사회를 흔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에 간 정칠성이 이러한 분위기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것임은 자연스럽게 짐작된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정칠성은 사회주의자로 변신하여 첫 활동을 그녀의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대구 여자청년회’를 결성함으로써<sup>49)</sup> 시작한다. 이후 정칠성은 정종명, 허정숙, 주세죽, 박원희 등과 함께 조선여성동우회의 발기인이 된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여성의 처지를 남성들의 ‘성적 노예’, ‘경제적 노예’로 규정하고 그 강령에 ‘신사회건설’,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사회주의적인 수사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sup>50)</sup> 이들은 1923년경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대표적 리더들이라 할만하다. 특히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이들에 의해 운동의 형태로 가시화된 1924년에 결성된 조선여성동우회는 최초의 여성 사회주의 단체였고 노동야학, 연구반, 여성직업 조합 등을 조직하고 국제무산부인데이(3월 8일) 기념행사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sup>51)</sup> 특히 1923년 7월 경성 고무공장 여공 파업이 여성동우회 탄생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2)</sup>

48)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 가운데서 특히 여성운동의 사회주의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자면 야마가와 기구에(山川菊枝), 히사츠 미히사코(久津見久子) 등에 의해 1921년에 조직된 ‘세키란카이(赤瀾會)’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세키란카이는 1921년 메이데이에 도쿄에서 전단을 뿌려 10여 명이 구속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세키란카이가 곧 해산된 후 1922년에는 국제여성데이를 기념하여 ‘요카카이(八日會)’라는 이름의 사회주의 여성 단체가 다시 결성되었다.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 『일본여성사』, 성해준·감영희 역, 어문학사, 2004, 348쪽.

49) 「대구여자청년 呱呱의 聲을 始發」, 『동아일보』, 1923.10.24.

50) 「여성동우회 발회식」, 『동아일보』, 1924.5.22.

51)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1992, 140쪽.

여성동우회는 그 활동 자체의 의의보다도 허정숙, 박원희, 주체죽, 정종명, 정칠성 등 서로 다른 지역과 계보에서 활동하던 초기 여성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나의 단체 안에서 규합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선여성동우회의 중요인물인 허정숙(1902~1991)과 주세죽(1901~1953)은 1921년 각자의 남편인 임원근, 박헌영과 함께 상해의 이르쿠츠크 고려 공산당 상해지부에서<sup>52)</sup> 활동하다가 1922년 국내에 들어왔다. 국경을 넘으면서 임원근과 박헌영이 체포되고 이들이 감옥에 있는 1923년에서 1924년 사이에 이들의 아내인 허정숙과 주세죽은 조선여성동우회 활동을 하게 된다.<sup>54)</sup>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일제의 체포를 피해 남편 김사국과 간도로 이주해 활동하던 박원희(1898~1928)도 1924년 초에 귀국해 있었다.<sup>55)</sup> 정종명의 경우, 그녀는 이미 1922년부터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조선여자고학생

52) 1923년 경성의 고무공장 여공들의 파업은 다섯 개의 고무공장 해동뢰구경해동양 그리고 한성 고무 공장의 연공들이 동맹 파업한 사건이다. 이 공장들의 여공들은 경성고무여직공조합을 조직하고 조선노동연맹회에 가입하는 한편 아사동맹을 체결하여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사건에 대해 경성 시내의 여러 직공단체와 토요회, 서울 청년회 등의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했고 마산노동동우회나 일본의 노동총연맹, 오사카 조선노동동맹회에서도 동정금을 보내기도 하는 등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연대의식을 발휘하게 한 사건이다. 이효재, 「일제하 여성 노동문제」,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광민사, 1978, 162~163쪽.

53) 1920년대 초 상해의 조선공산주의 운동은 상해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상해지부의 두 계열로 나뉘어 있었고 이 조직은 서로 극심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가운데서 이르쿠츠크 고려 공산당 상해지부는 연해주 이르쿠츠크에서 결성된 고려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있는 조직이었다.

54) 허정숙의 삶과 활동에 대해서는 서형실, 「허정숙,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6호, 역사비평사, 1992와 허정숙의 이복 여동생인 허근옥이 쓴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1994.8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 글도 위의 글들의 정리를 따른 것이다.

55) 박원희는 조선노동공제회에서 활동하던 오빠 박광희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고 역시 사회주의자인 김사국과 결혼해 일본에서 공부하고 국내에 돌아와 사회주의 활동을 하던 중, 수배를 피해 남편과 함께 간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4년 초 서울로 돌아온 후로는 광진부인회(廣進婦人會)에 가입하여 서울청년회와의 관련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간다. 박원희는 이후 근우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1928년 병으로 사망한다. 박원희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미경,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집, 2013.3 참조.

상조회이라는 조직을 이끈 바가 있다. 정중명은 1920년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소를 졸업하여 더 이상 학생 신분은 아니었지만 이 조직에 리더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터는 것은 물론 스스로 독지가를 찾아가거나 강연으로 모금운동을 하는 선배로서 활동했다.<sup>56)</sup>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사상 운동 단체를 조직하게 된다. 1920년대는 사상단체의 시대라고 할 만큼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 운동 단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정리하자면 허정숙은 경성여자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조선공산당 결성(1925)에 참여하기도 하며 정중명은 1924년 조선간호부협회를 창설하고 북풍회, 정우회 등의 공산주의 운동 단체들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정철성 역시 대구지역의 여자청년회를 이끌다가 1924년경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여성 사회주의 단체를 조직하고 동경 유학생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어나간다.

1925년 정철성은 두 번째로 일본 유학을 떠나 동경기예(技藝)학교로 불리는 재봉과 편물, 자수를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4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정철성의 동경에서의 수학은 귀국 후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다이쇼 9년경(1920년)부터 급속히 여성들 사이에 양장이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미싱 회사인 자노메(蛇の目)가 발족하게 되는 등 양재와 재봉기술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에 재봉여학교, 미싱여학교 등 전문 기술학교가 생겨났다.<sup>57)</sup> 정철성이 기예학교를 선택한 것은 다이쇼 시대 후반 일본의 이러한 풍속적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1920년대 초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신여성들이 급증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패션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만큼 재봉업은 당시로서는 매우 전도유망한 직종이기도 했다.

첫 번째 도일에 비해 정철성의 두 번째 도일은 훨씬 뚜렷한 사상적 목적이 있었고 이에 걸맞게 그는 기예학교를 다니면서 삼월회(三月會) 활동을 하게

56) 「첫 길에 선 이들(26)」, 『조선일보』, 1924.12.19.

57) 미나미 히로시(南博), 『다이쇼 문화 1905~1927: 일본 대중문화의 기원』, 정대성역, 제이앤씨, 2007, 335~345쪽.

된다.<sup>58)</sup> 1926년 1월 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정철성의 글 「신여성이란 무엇-가치대폭락의 허물은 누구에게」에 정철성의 신분은 ‘재(在)동경조선여성사상단체 삼월회 간사’로 밝혀져 있다. ‘삼월회’에서 정철성이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삼월회는 관동대진재 당시 죽은 동포들의 추도회, 레닌 추도식, 토론회, 강연회 등의 활동에서 당시 제일 본 무산계급운동 단체들이었던 일월회, 무산학우회, 흑우회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다 1927년 해체되는데 그 해체 명분은 “조선의 모든 운동이 전환기에 있고 지금까지 해 온 협의적 운동을 버리고…전조선 여성을 위해 해체한 뒤…여자청년회로 조직”<sup>59)</sup>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나름의 발전적인 해체는 조선에서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1927년 2월에 발족하게 된 것과 무관치 않으며 신간회 발족을 기회로 재일본의 무산계급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들과의 합작 붐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정철성의 조직 활동의 전성기는 1926년 귀국 후 잠시 동아일보사 기자를 거쳤다가 참여하게 된 근우회 활동 시기였다. 신간회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체였듯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 역시 김활란, 유영준, 유각경 등의 기독교 및 민족주의 계열과 정종명, 황신덕, 정철성, 주세죽, 이현경 등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의 연합체였다. 근우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활동 가로는 정종명과 정철성 그리고 황신덕을 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초기부터 근우회가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력이 민족주의 계열보다 컸던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며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인 주세죽과 허정숙이 초기부터 참여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해 유학시절부터 강경한 공산주의자들의 모임과 조직에 참여해온 허정숙과 주세죽의 처지로서 좌우합작 노선을 취한 근우회 운동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여기에 이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한몫을 했다. 주세죽은 1928년 병보석으로 출옥한 남편 박헌영과 함께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망명했고 허정숙은 1926년 5월에 이미 미국으로 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

58) 1920년대 중반 동경에 소재해 있던 대표적인 한국인 사상단체로는 일월회, 삼월회, 조선무산청년동맹,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삼월회는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상단체였다.

59) 「삼월회 해체」, 『동아일보』 1927.1.10.

다.<sup>60)</sup> 허정숙이 근우회 활동에 합류한 것은 미국에서 귀국한 후인 1928년경 부터였고 허정숙이 근우회 활동에 합류한 뒤 근우회 기관지인 『근우(槿友)』가 1929년 5월 창간된다.



1928년 근우회 활동 당시의 정철성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근우회 설립 초기 부터 특히 정종명과 정철성은 근우회의 가장 열정적인 활동가였다. 정종명은 1928년에 그리고 정철성은 1929년 중앙집행위원장이 되면서 근우회의 수장(首將)이 되었다. 근우회의 활동이 주로 강연회에 있었던 만큼, 이들은 주로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의 연사로서 활약되게 된다.<sup>61)</sup> 이들의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조직 참여 양상을 비교해 보면 허정숙과 정종명은 조선공산당 산하 단체에 비교적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특별히 ‘여성’ 단체의 활동이 적은 반면, 정철성은 조선여성동우회와 일본에서

조직한 삼월회 그리고 귀국 후 근우회 등의 ‘여성’운동 단체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활동 영역의 차이는 정철성의 건강 문제에도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실제로 정철성은 근우회 활동 기간이었던 1928년부터 신간회와 근우회의 해소론이 일기 시작한 1930년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자주 고향으로 요양을 가기도 했다. 또한 근우회 활동이나 여타의 사회주의 활동으로 정철성은 3~4일간의 구류 기간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투옥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허

60) 주세죽은 1926년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된 남편 박헌영이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하게 된다. 허정숙은 남편 임원근이 박헌영과 마찬가지로 2차 조공 사건으로 검거된 후 남편이 투옥 중인 상황에서 북풍회 회원 송봉우와 동거설이 나돌면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허정숙은 1926년 아버지 허헌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학을 배우다가 1927년 말 귀국한다.

61) 정철성의 지방 강연 기사는 근우회 기간 내내 자주 발견된다. 1927년 6월 평양 여우회 강연, 1927년 10월 근우회 함흥지회 강연, 1927년 12월 신간회 강연, 1928년 5월 신간회 황주강연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강연회에는 일본 경찰이 입회해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의해 검속되거나 주의를 받거나 해산되기도 했다.

정숙은 1930년 1월 경성지역 여학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다른 근우회 간부였던 박차정<sup>62)</sup>과 함께 검거되어 옥중에서 셋째 아들을 출산한 뒤 1932년 만기 출소하였고 정중명도 1931년 4월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으로 투옥되어 1935년에 만기 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우회 활동이 매우 부실하고 불완전한 활동으로 내부적, 외부적으로 비판 받기도 했다. 내부의 비판은 바로 근우회 동경지회의 비판이었다. 보다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근우회 동경지회가 근우회 본부를 향해 쏟은 비판의 핵심은 노농 계급 여성의 투쟁 운동보다 반(反)봉건적 계몽주의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었다. 이 밖에도 외부의 비판의 일례로는 조선공산당 정치부장이었던 안광선의 비판, 근우회가 ‘소부르주아 인텔리겐차’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뼈아픈 비판이었다.<sup>63)</sup>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비판은 근우회의 계급성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서로 일맥상통한 바가 있었다. 물론 근우회 자체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합작단체였던 만큼 이러한 비판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지점보다도 오히려 본질적으로 당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로 인해 근우회 활동은 나름의 한계를 이미 내장하고 있었다.

#### IV. 여성해방의 이슈로서 경제적 독립

정철성의 활동과 사상이 갖는 특별함이 있다면 이들 1920년대 대표적인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삶과 사상에 견주어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정철성은

62) 경남 동래 출신의 박차정(1910~1944)은 일신여학교 재학 당시부터 동맹휴학을 주도하는 등 일찍부터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고 메이지 대학 출신으로 신간회에서 활약하던 오빠 박문희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된다. 박차정의 본격적인 활동은 1929년 여학교를 졸업한 후 근우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930년 서울 여학생 시위 사건의 배후로 검거되어 불기소로 풀려난 후 박차정은 오빠 박문희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에 합류하여 활동하게 된다. 의열단에 합류한 그녀는 김원봉의 아내가 된다. 박차정의 삶과 활동에 대해서는 강영심, 「항일 운동가 박차정의 생애와 투쟁」, 『여/성이론』 8호, 2003.6을 참조하였다.

63) 1929년 근우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장인모, 「1920년대 근우회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2008.9, 394쪽~403쪽.

물론이거니와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은 그다지 체계적이거나 정교하지 않다. 이들의 활동이 주로 글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연이나 시위 주도 등의 현장 활동에 주력했던 것도 한 이유이지만 몇 편의 글로서 전달되는 그들의 사상도 사회주의적 사상을 여성 운동의 버전으로 아주 간명화 시킨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단순히 그들의 지적(知的)인 한계라기보다는 여성해방운동이 사회주의 사상 내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애매함’ 때문이기도 하다. 이 애매함으로 인해 192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 해방론은 실질적으로 담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개화기부터 전개되어 온 여성계몽운동과의 차별성을 내보이는 데에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와 여성운동과의 애매한 관계는 당시 조선 사회주의 운동의 기본 방침에 영향을 주던 코민테른의 입장과의 연결되어 있다. 여성운동에 대한 코민테른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이 사회주의 운동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사회주의 내에서 여성운동을 분리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코민테른의 입장이지만 코민테른은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의 특수성 즉 아직 봉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여성 문제를 다룰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sup>64)</sup>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성운동은 특수성의 문제일 뿐 막시즘의 본령은 아니었다.

즉 당시의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 운동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봉건적인 아시아 사회에서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의 자각과 각성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단계를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여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내부에 존재해 있던 계급적 분할 즉 모든 여성들이 단일한 계급에 있지 않음을

64)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코민테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 본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 2001.2. 47~48쪽을 참조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들은 1921년 6월 코민테른 제2회 국제공산주의 여성회의, 1922년 1월 극동제노동여성논의, 1924년 7월의 국제공산주의여성회의에 여성대표를 파견한 바 있다.

설명하게 되면 ‘여성운동’이라는 논점이 흐려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억압을 강조하게 되면 각각의 여성들이 처한 계급적 차이에 대한 논점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계급이나 여성이라는 논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듯하다. 여성이 곧 무산계급이라는 논리를 통해 여성해방론은 계급해방론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지만 이러한 무산계급 논리에 흡수되는 여성해방론은 각 계급의 여성들이 처한 특수성을 읽어내기에는 너무 거친 틀이었다. 즉 여성들 전체가 남성 지배에 의해 억눌려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곧 무산계급이라는 도식은 여성들이 각각 처한 계급적 처지를 고려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일단 당시 조선 사회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첫 단계에서는 여성들을 계몽하여 그들의 처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반봉건 투쟁에 나서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무산계급 투쟁에 나서는 단계적 투쟁의 방식을 채택했다.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민족주의자 혹은 부르주아 여성운동과 일치점이 발생되며 그 일치점이 바로 좌우 여성계가 망라된 근우회 성립과 활동의 근거였다. 젠더와 계급에 대한 매끄럽지 않은 이러한 논리적 통합은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종종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지게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같은 여성 사회주의자이지만 허정숙과 정철성이 젠더와 계급에 관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처음부터 근우회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돌아온 후 근우회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허정숙은 1929년 근우회 기관지인 『근우(槿友)』 창간지에서 여성운동과 계급 운동의 연결고리에 대해 나름의 논리로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산업혁명과 함께 여성도 과거의 남성 지배의 봉건적 인습에서 해방되어 일개 사회인으로 자기 생활을 보장받아 자유계약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나 (...) 가정을 떠나 노동 시장 작업장으로 나감으로 다시 자본가에게 예속되었고 (...) 여성이 받은 해방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해방에 불과하므로 형식적 해방으로부터 실제적 해방이 될 필요가 있다.” 허정숙은 이어 “조선사회는 근대문명의 수입과 함께 조선여성은 서광을 보게 되었지만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차별 문제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

체는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근우회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허정숙은 “근우회는 원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여성 계몽운동을 표어로 한 조직체”임을 명시하고 있다.<sup>65)</sup> 이 글을 통해 허정숙은 전형적으로 여성운동과 계급운동을 단계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노동에 대해 1장에서 언급했던 나혜석의 계급적 몰이해가 허정숙의 글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그 사회의 생산제도가 여성까지도 노역장에 나와서 노동하여야만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까닭으로 그들은 노동부인 직업부인으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 그날부터 그들에게는 가정파산의 선고를 받게 되고 그들의 자녀는 무의무교육의 고아가 되고 맡게 되었다. (...) 그들의 가정은 파괴되고 그들의 유아는 굶주리는 창자를 안고 가두에 방황하는 부모 있는 고아가 되게 하는 비참의 사실이 그들 앞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인이 현재 약 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 무산층에 속하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sup>66)</sup>

허정숙은 여성이 노동하러 나오는 순간 가정은 파탄나고 아이들은 길거리의 거지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성이 떠안게 되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의문을 품기보다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정이 파산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여성 착취의 문제에 대한 섬세하지 않은 혹은 모순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허정숙이 그 이전에 발표한 다른 글과도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 1924년 『동아일보』에 ‘수가이(秀嘉伊)’라는 필명으로 허정숙은 “경제적 예측으로 인하여 성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은 부르주아 여성이나 무산여성에게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다. 남성에게서 옷과 밥을 구하기는 소위 매음부나 가정부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성해방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방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sup>67)</sup> 그러나 여성해방이라는 단계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고 경제적

65) 허정숙, 「근우회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과제」, 『근우』 창간호, 1929.5.

66) 위의 글, 9~11쪽.

67) 수가이, 「여자해방은 경제적독립이 근본」, 『동아일보』, 1924.11.3.

독립을 위해 직업을 얻지만 직업여성 역시 자본가에 의해 착취당할 뿐이다. 자본가에 의한 착취이므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한 허정숙은 여성이 처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놓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녀가 말하는 작업 환경들은 풍문에 들은 것이고 심지어는 의도하지 않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낙인마저 찍는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여공의 반수(半數) 이상은 모두 다 무서운 폐병환자들이라 한다. 그것만으로도 저들의 경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 것이다.”<sup>68)</sup>

즉 논리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허정숙의 글은 무산계급 여성에 대한 매우 추상적이거나 경험이 결여된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철성의 인식은 허정숙의 글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무산계급 여성들 즉 어쩔 수 없이 작업장으로 내몰린 직업부인들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감 의식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밖에 도시의 각 공장 급 기차 각 방면에 산재한 무산여성들을 보라. 어린 자식이 어머니를 부르며 흙과 똥을 함부로 집어먹음에도 돌볼 틈도 없이 하루의 열 두시 내지 열 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공장부인이다. 게다가 공장의 해고라는 선고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침과 화장은 마침내 개성을 여지없이 유린 당하고 현대 경제조직의 표현인 생산과다라는 병은 그들로 하여금 때때로 거리에 방황하게 한다. 여기서 요사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인 ‘룸펜프롤레타리아’대군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행에 빠진 여성이 어찌 농촌과 공장뿐이라 유곽 부잣집 하인 기타 각 방면에서도 많은 여성들의 비참을 우리는 잘 알며 보지 않았는가.<sup>69)</sup>

공장과 농촌의 여성 그리고 유곽의 여성, 부잣집 하인이라는 구체적인 무산계급 여성의 삶에 대한 정철성의 공감은 분명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기생으로 이중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졌던 그녀의 경험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또한 이 글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감정적 소모에 대해

68) 위의 글.

69) 정철성, 『의식적 각성으로부터-무산부인생활에서』, 『근우』 창간호, 1929.5, 36~37쪽.

서도 정철성은 지적하고 있다. 무산계급 직업부인에 관한 비슷한 묘사이며 동일하게 『근우』 창간호에 실린 두 편의 글이지만 허정숙의 글과 정철성의 글은 미묘하게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정철성은 여성들의 교육이나 계몽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선명한 계급의식 하에서 성 차별 철폐 운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성운동과 무산계급운동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다.<sup>70)</sup> 정철성은 ‘여성’으로 통칭되는 집단들의 해방이 아니라 특별히 무산계급 여성의 해방을 분명히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철성이 입장에서 무산계급 여성의 해방의 첫 단계는 교육이기보다는 바로 경제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치는 人種之末들이나 할 것이니까요. 프롤레타리아의 세계에는 사치는 일흠이 업습니다. 좌우간 우리들이 새로운 양성관계를 세우려면 무엇 무엇하여도 경제적 독립부터 얻지 안으면 다 헛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를 뛰어 넘어서 경제적 독립을 얻을가 하면 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최후의 말은 언제든지 무산자의 해방이 없이는 부인의 해방이 없다는 말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중략…

노라는 개인주의적 자각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개성에는 눈을 떠서 눈보라 치는 날 밤에 남편인 변호사의 집을 뛰어나오지요. 그러나 그는 어디 가서 무얼하고 살아갑니까. 街頭에 나가 굶어 죽고 어러 죽는 ‘해방’은 해방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해방을 얻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노라가튼 여성은 공상적 여성이 아니면 해방이 조금도 되지 못한 여성이지요.<sup>71)</sup>

변호사의 아내였던 노라가 집을 나오자마자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굶어죽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철성은 모든 여성이 잠재적으로 혹은 이미 프롤레타리아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나가서 스스로 돈을 벌고 경제적 독립을 쟁취해야 하지만 당시의 가족제도로는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허정숙이 여성이 노동을 함으로써 자본가에게 착취당할 뿐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과는 달리 정철성은 정확하게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70) 정철성, 「참 자유의 길」, 『여자계』, 1927.1.

71) 「赤戀批判, 꼬른타이의 性道德에 對하야(대담)」, 『삼천리』, 1929.9, 8쪽.

가 지배하는 가족임금경제 하에서 직업 여성의 임금이 가족 더 구체적으로는 남성에게 착취되고 있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철성은 자신이 잠재적인 혹은 실질적인 프롤레타리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성의 돈으로 의존적으로 살면서 그러한 노예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교육 받은 ‘신여성’으로 여기는 사이비 신여성에 대해 정철성은 다음과 같은 분노를 쏟아낸다. “그들의 입술로만 부르짖는 자유는 부르주아의 인형이 되고자 자유요, 허영의 나래를 펴고 연애의 꿈나라로 비상하고자 하는 자유였다. 그들의 찾던 평등은 애인의 인기를 끌려고 연단 위에서 눈치 주든 暗語요 집에만 들어가면 보석반지 한 개에 남녀평등 같은 수작이야 ‘노예’, ‘맹종’ 등의 옷장까지 더하여 팔아먹었다, 그들 중에는 외국신문지쪽에서 본 그대로 ‘공창제도폐지’ 운운 해보았지만 이것도 축음기 구멍으로나 나오는 의식 없는 흉내요(의식이 있었다면 공창된 사회적 원인이라고 캐어보았겠지.)”<sup>72)</sup> 정철성의 언급에서 괄호 안에 표현된 그녀의 투덜거림은 매우 울림 있게 다가온다. 당시에 여성해방주의자들이 공창폐지를 말하고는 하지만 정작 왜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는지 그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여성’의 가치를 폭락시킨 이들 사이비 여성들에 대한 분노는 1932년 신동아가 주최한 ‘부인문제 좌담회’를 보고 이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을 ‘인형(人形)’이라 부르며 비판했던 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신계단』 1933년 1월호에 「인형전람회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서 정철성은 이들 좌담회에 참석한 여성들에 대해 ‘여성으로서는 최고 학부 출신의 여성, 서양에서 배우고 온 하이카라 학·박사, 잡지사 기자, 여류문인, 정치객의 부인’들이 남편을 빼앗긴 원흉으로 카페를 지목하고 카페여급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정작 왜 카페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sup>73)</sup>

결론적으로 정철성은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에서 젠더와 계급이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정철성은 상류층 여성들이 무산계급 여성에 대해 동일시하지 못하는 공감의 부족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각성해야 할 사

72) 정철성, 「신여성이란 무엇-가치대폭락의 허물은 누구에게」, 『조선일보』, 1926.1.4.

73) 정철성, 「인형전람회를 보고」, 『신계단』, 1933년 1월, 130~131쪽.

람은 고통 받는 직업부인들이 아닌, 남성의 돈으로 향락을 누리면서도 스스로가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무산계급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류층 여성들임을 지시하고 있다. 카페 여급이나 공창(公娼)의 성판매여성과 같은 불우한 처지의 여성들을 질투하는 상류층 여성들에게 유독 분노하는 정철성의 모습에서, 부르주아 여성들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도 어떤 계급적 벽이 놓여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출신 계급들을 보면 정철성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가정의 딸로서 부모에 의해 기생이 되었다가 기생으로서 나름 성공한 여성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경우는 주목받는 일이었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다. 당시 유명 여성 사회주의자들인 허정숙, 주세죽, 황신덕 등은 대개 유복한 집안의 출신이거나 처음부터 여학생 출신이었다. 정철성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로는 간호부이자 산파였던 정종명을 들 수 있지만 기생과 간호부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었다. 조선 공산당(조공) 당원들의 계급적 구성을 통해서도 사회주의자들의 계급적 구성에서 실제 프롤레타리아 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이 매우 소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공 당원 중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계급이 40퍼센트였고 노동자는 사무직 노동자를 포함하여서도 11.6퍼센트 정도였던 반면 식민지 시기 전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도 조공의 당원 중에서 13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당원 구성에 대해서도 조공에 직접적인 지령을 하달하던 코민테른도 불만스럽게 여긴 바가 있다.<sup>74)</sup> 근우회 역시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와는 거리가 있었다. 우연히 ‘근우회전국대회 회장’으로 들어간 경성방직공장 여공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당시 근우회가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근우회 전국대회를 一瞥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찬란한 복장을 입은 油頭粉面의 여성만이 수백 명이 집합되어 있다. 분 냄새 향수 냄새는 코를 찌른다. 사실 말이지 나 같은 노동복 입고 땀 냄새 나는 여성은 한 사람도 없다.”<sup>75)</sup> 이 여공이 느꼈던 당혹감은 좌우합작 단체인 근우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특성이

74) 스킨라피노 · 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1-식민지시대편』, 한홍구 역, 돌베개, 1986, 179~181쪽.

75) 경성방직회사 일여공, 「근우회전국대회를 보고」, 『青年朝鮮』, 1928.7.31.(朴慶植編, 『조선문제자료총서』 第5卷, 한국학진흥원, 1987, 404쪽.)

자 한계와도 무관치 않다. 물론 여성 사회주의자 여성들이 찬란한 복장을 입고 얼굴에 분칠을 했다기보다도 실제로 이들 리더들과 노동자들 사이가 유리되어 있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간회와 근우회가 유아무야 해산되고 난 뒤, 사회주의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더 심해져 정철성의 동지들인 근우회 활동가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으로 들어갔다. 근우회가 해산될 당시 허정숙과 정종명은 감옥에 있었지만 황신덕은 서울청년회 간부였던 임봉순의 아내가 되었고 심은숙은 홍명희의 아들인 홍기문의 아내가 되었다. 조원숙에 대해서도 조공 당원이었던 양명과 결혼하여 상해에서 잠시 망명생활을 했지만 곧 돌아와 시가에서 아이를 기르는 근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sup>76)</sup> 출옥한 허정숙은 삼청동에 빨간 벽돌로 된 이층집에서 그의 아버지 허헌과 함께 8천원의 자본금을 들여 ‘태양광선치료원’을 개업했다.<sup>77)</sup> 정철성에게는 같은 이념을 공유한 연인도 없었고 그렇기에 돌아갈 가정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그 대신 낙원동에 분옥(粉玉)수예점이라는 작은 가게를 차리고 무료로 수예를 가르쳐주며 살아가게 된다.<sup>78)</sup>

정철성의 동지들은 대부분 자신들과 이념적 지향점이 같았던 남성 사회주의자들과 결혼하거나 그들의 연인이 되었다. 이른바 ‘붉은 연애(赤戀)’라는, 연애와 이념이 결합된 사회주의자들 간의 연애 스타일이 그대로 구현된 경우들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허정숙의 동거 사건들<sup>79)</sup>은 물론 이미 장성한 아들을 둔 소년과부 정종명도 사회주의자 신철, 천두상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이외에도 주세죽도 오랜 소련 망명 생활을 하면서 박헌영과 김단야를 차례로 남편으로 두었고 경성 학생 시위를 주도한 뒤 허정숙과 함께 검거되었던 박차정도 중국으로 망명 간 뒤 김원봉의 아내가 되었다. 정종명과 함께 여자고학생상조회 활동을 했던 김조이도 당시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조봉암의 아내였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연애와 사상이 결

76) 「여류운동가의 그후」, 『삼천리』, 1934.6, 16쪽.

77) 부인기자, 「허정숙 여사의 태양광선치료원, 일대의 여류 운동가 허씨가 자연과학전당으로 진출」, 『삼천리』, 1932.9, 58~60쪽.

78) 「풍문첩」, 『별건곤』, 1930.12.

79) 허정숙은 임원근, 송봉우, 신일룡 등의 남성들과 혼인 및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각기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

합된 ‘붉은 연애(赤戀)’가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둘러싼 최대의 통속적인 이슈였던 것에 비해 독신이었던 정철성의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1897년 생인 정철성은 1930년대까지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였지만 그에게 사회주의자 연인은 발견되지 않으며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듯, 유독 연애와 성에 있어서 정철성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의 연애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의 문란한 혹은 솔직한 욕망 충족 혹은 이념과 연애가 결합된 숭고한 동지적 사랑 혹은 아지트 키퍼가 필요했던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이기심 등등의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관계에서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분명 같은 사회주의자이지만 여성들에게 일종의 젠더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그리고 후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붉은 연애’는 서로에게 이득이었다. 그런데 그 이득이 각각의 커플들마다 달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허정숙의 경우 그녀의 아버지 허헌은 의식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변호사로서 많은 사회주의운동가 혹은 독립투사들의 대부격 후원자였고 그 덕에 허헌의 집에는 늘 운동가들이 드나들었다. 허헌의 딸로서 허정숙이 갖고 있던 상징 자본은 분명 그녀 주변의 ‘주의자’ 남성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보였을 것이다. 한편 어릴 적 천연두를 앓아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정종명의 경우는 경제력 있는 산파이자 간호부로서 많은 운동가들을 도우므로써 ‘누이’이자 ‘식모’이자 ‘어머니’로 불릴 정도로 사회화된 모성을 갖춘 여성이었다.<sup>80)</sup>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에 비춰 보았을 때 정철성은 사회주의자 남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녀에게는 사회주의자 남성들에게 나누어줄 상징자본이나 경제력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정철성의 의식적인 노력인지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붉은 연인이 없었고 그럼으로써 그녀의 삶은 외롭지만 보다 독립적으로 보인다. 이 독립성은 물론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인 것일 수 있고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독신으로 살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다지 희

80) 정종명은 자신의 수입으로 여러 사회주의자들을 돌보았던 일화들을 남겼고 그럼으로써 누이이자, 식모이자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이양, 「열성과 근로의 정종명씨-근우회 여류투사」, 『삼천리』, 1931.4, 30쪽.

귀한 사례도 아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철성은 근우회가 해소될 무렵부터 분명 먹고 사는 일, 생업에 기반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았다. 또한 기생으로서 ‘대갓집의 소실 노릇’을 하며 십년 이상을 살았던 어떤 자의식의 영향으로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쏟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철성의 삶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해석을 가하자면 정철성은 경제적 독립이라는 여성들의 공통적인 목표를 더 이루고 싶어 했던 듯하다. 이러한 목표에 아무리 사회주의자라 하더라도 남성들은 방해가 될 뿐이었다. 또한 “현대의 계급 사회에 있어서 연애에서도 그것(계급-인용자)을 초월하게 되지 못할 뿐더러… 현대와 같은 과도기에 있어서는 진실한 연애는 할 수 없으리라”<sup>81)</sup>라며 연애와 계급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연애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데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연애에 대한 정철성의 생각이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남성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점은 다음의 1935년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의 남성을 일반적으로 본다면 거의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그 횡포에 대해 어떤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남성을 내 손으로 놀게는 하였으나 남성의 지배 밑에 속박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보지를 않고 하여 남성이 횡포에 대하여 나만이 가진 무슨 할 말은 없습니다.<sup>82)</sup>

“남성을 내 손으로 놀게는 하였지만 남성에게 머리를 숙여 보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정철성은 기생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매우 떳떳하게 드러낸다. 이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정철성은 원산, 평양, 서울 등을 오가며 강습소 운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시 조직을 만들거나 여성단체에 들어가려는 기자의 권유에는 단호히 거부한다. 대외적인 위장일 수도 있고 일체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 조직이 가능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다.

81) 정철성, 「연애의 고민상과 그 대책」, 『조선지광』, 1931.1, 39쪽.

82) 「그 뒤에 이야기 하는 諸女士의 이동 좌담회」, 『중앙』, 1935.1, 456쪽.

특히 근우회에 누구보다 헌신했고 그래서 근우회 해소론이 일자 이를 잠시 변호하는 듯하다가<sup>83)</sup> ‘근우회는 무용의 장물(長物)’<sup>84)</sup>이라며 일갈하면서 드러낸 조직에 대한 그녀의 불신도 한 이유일 수 있다.

어쨌든 위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여성 운동가들에게 기자가 짓궂게 던진 물음들- 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남성에게 어떤 불만이 없는냐는 등 자연스럽고 연애사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의도성 질문에 대해 정철성은 위의 같이 대답하면서 그 의도를 무너뜨린다. 그 전략은 ‘남자를 놀게 하였다’는 숨기고 싶을 수 있는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드러내면서도 ‘남성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속박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감지되는 것은 독립된 여성 자아의 모습이다. 당시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반드시 그녀들을 사회주의로 이끈 인물로서 연인이나 남편 그리고 오빠 혹은 아버지(허정숙의 경우) 등 남성들이 있었다.<sup>85)</sup> 이들 남성들은 확실히 여성들에게 운동과 정치의 기회를 부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떠들썩한 연애로 그녀들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거나 누군가의 연인이나 아내나 딸로서 인정 혹은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정철성에게는 이러한 남성이 없었고 고로 운동과 정치의 기회를 스스로 개척해야 했고 활동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연인이나 아내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정철성의 행적은 ‘상대적’으로 소박하거나 혹은 혼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했기에 더욱 외로워 보인다. 따라서 근우회 해소 이후 조직을 거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운동가로서 갖는 그녀의 개인적인 한계와 더불어 사상적 파트너가 부재하는, 게다가 학력이라는 상징자본이 없는 노동자(기생) 출신 여성운동가의 고군분투를 읽어낼 수 있다.

83) 정철성, 「계몽운동에 주력—해소론은 시기상조이다」, 『조선일보』, 1931.1.1.

84) 정철성, 「근우회는 무용의 장물」, 『비판』, 1932.1.

85) 이 글에서 간단히 소개된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삶을 검토해보면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V. 근우회 해소 이후와 해방 이후의 정철성: 맺음말을 대신하여

앞서 언급했다시피 근우회가 해산되고 난 뒤 정철성의 동지들은 사회주의 활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가거나<sup>86)</sup> 아니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더 이상 사회주의 운동이 가능하지 않게 된 1930년대 조선에서 정철성의 공식적인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정철성은 수예점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예, 편물 강습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해방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허정숙처럼 부유한 명망가 집안의 딸이거나 정종명처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업여성이 아니라면 식민지 시기 남성의 힘을 빌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매우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도 최소한의 생계비와 활동비가 필요한 것이었다.<sup>87)</sup> 다시 1장에서 언급했던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자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여권 신장을 외쳤던 나혜석을 예로 들자면 그녀도 이혼을 당한 뒤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여성들의 처지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애초에 2차 일본 유학에서도 기예(技藝)학교에서 편물과 자수를 공부해 온 정철성의 이력과 이후의 편물 강습회는 분명 경제적인 자립의 실천을 위한 것임을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이념 운동임을 짐작하게 한다. 정철성은 이미 1927년경부터 편물 강습회를 열기 시작한다. 정철성이 일본에서 돌아와 잠시 기자 노릇을 한 인연이 있었던 동아일보는 정철성의 편물 강습회를 광고해주기도 하고 직접 정철성을 강사로 한 편물강습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1928년에는 정철성을 교장으로 한 ‘조선여성직업사(朝鮮女性職業社)’가 설립되기도 했는데 동아일보 광고 기사는 자수와 재봉을 교수하는 이 단체에 대해 “여성의 계몽운동도 필요하지만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sup>88)</sup> 것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

86) 출옥 후 태양광선 치료원을 열었던 허정숙은 1935년경 최창익을 따라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87) 대부분 전업 활동가였던 사회주의자들에게 ‘돈’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코민테른에서 하달된 활동비를 받는 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코민테른에서 오는 활동비는 서로 다른 분파에 속한 사회주의자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88) 「조선여성직업사설립」, 『동아일보』, 1928.1.15.

고 기사에는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정철성의 생각이 반영된 듯하다. 다만 이러한 강습회가 여성운동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정철성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철성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해방 직후였다. 유영준<sup>89)</sup>, 고명자<sup>90)</sup>, 김조이<sup>91)</sup>, 정철성 등 왕년의 여성운동가들은 해방이 되자마다 건국부녀동맹에 다시 모였다. 정철성은 1945년 11월 건국부녀동맹 소속으로 강연을 하고 1945년 12월 22일 남북한 전체 약 200여개의 조직이 참여한 전국부녀단체 대표자 대회가 열렸을 때 이 대회에서 사회를 맡는다. 이후 정철성은 1947년부터 여맹(남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조직 활동에 가담하면서 20여 년 전 못 다 이룬 이념의 꿈을 해방공간에서 펼치고자 했지만 남한에 정부가 수립된 48년 이후 좌익계 단체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정철성은 다시 체포와 구금을 겪게 된다.<sup>92)</sup> 정철성은 1948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했다가 그곳에 머물면서 월북하게 되었고 1956년 조선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부위원장, 195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후보, 1957년 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1958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3)</sup>

89) 1890년 평양생으로 동경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출신의 여성 사회주의자이다. 일본유학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도 했고 정철성과 마찬가지로 근우회 활동을 했으며 해방 후 월북하여 북한에서 고위직에 오르기도 했다.

90) 주세죽, 허정숙과 함께 여성 사회주의자 트로이카로 불렸던 인물로 김단야의 연인이기도 했다.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가 여성 사회주의자 트로이카라면 이들의 남편 혹은 연인이었던 박현영, 임원근, 김단야는 사회주의자 트로이카로 불렸다.

91) 여자고학생 상호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을 활동을 하던 여성 사회주의자로 1924년 조봉암과 결혼했다. 1920년대 말 주세죽, 박현영 부부가 모스크바에서 각각 국제레닌 학교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할 때 김조이도 주세죽과 같이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한 바 있다.(서경석, 『이정 박현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159쪽.) 김조이가 귀국한 것은 1931년이었고 귀국하자마자 검거되어 투옥된다.

92) 해방공간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연구한 이임하의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철수와영희, 2015)의 제5장에는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익 여성단체의 활약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건국부녀동맹과 남조선민주여성동맹과 관련한 정철성의 활약도 군데군데 등장한다.

93) 성대경 엮음, 『시대를 앞서 간 사람들』, 선인, 2014, 268쪽.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정철성의 삶을 언급한 소수의 문헌들은 모두 정철성이 58년에 사망했다고

식민지 시기 정철성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사상적 면모를 뚜렷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많은 글을 남기지도 않았고 그녀가 남긴 글들마저 매우 단편적인 사고의 편린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녀가 가진 생각을 ‘사상’의 반열에 올려 놓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나마 재구성되는 정철성의 삶의 궤적들을 따라가 볼 때 정철성은 매우 일찍부터 뛰어든 노동의 세계 그것도 기생으로서 처하게 되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 자신도 평등한 인간임을 깨닫고 사회주의자로서 그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정철성은 기생 체험을 통해 여성이 공적 세계에서 돈을 벌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즉 정철성은 노동의 의미를 긍정하면서도 공적 세계에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고통을 자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감정은 곧 이념적 자각, 정치적 자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감정의 일깨움은 바로 랑시에르가 말하는 주체화의 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주체화는 기존의 정해져 있는 감성으로부터 자신을 빼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감성의 분할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것이다.<sup>94)</sup> 기생의 고통은 전근대 사회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이를 정치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새로운 것이며 새로운 언어를 통한 감성의 분할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는 정철성에게 그녀의 삶을 ‘일부’ 설명하는 언어를 부여했지만 그녀는 기생으로서의 체험을 고통으로 이미 인식했고 이러한 고통이라는 감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서 사회주의는 그녀에 의해 선택된 이념일 뿐이다.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가 정철성에게 그녀의 체험을 설명할 적절한 언어를 부여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억압, 착취, 프롤레타리아, 자본가, 무산자로서의 여성 등의 사회주의의 언어는 기생으로서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적

---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철성의 죽음이 숙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 등의 의한 것인지는 문헌마다 달라 사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94) 랑시에르는 새로운 공동체를 내세워 새로운 경험의 영역을 보여줄 때 정치적 주체화는 가능하며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탄생은 ‘새로운’ 감성의 분할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감성의 분할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배분하고 재분배하는 행위이다.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2007, 제1장 문학의 정치 참조.

확하게 설명해 내지 못했다. 기생은 계급과 젠더 그리고 부르주아 도덕률이 교차하는 어떤 지점에 서 있는 매우 복잡한 존재였고 따라서 이들의 경험은 식민지 시기 당시로는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어떤 이념으로도 설명해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정철성에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회주의의 언어에 쉽게 자기를 내맡겼다는 점에 있지만 그것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도’ 사회주의가 당시로는 정철성의 삶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주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견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의 논리와 정철성의 논리 상의 차이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같은 언어의 사용 속에서도 정철성은 설명되지 않는 혹은 아직 언어가 부여되지 않은 자신의 감성을 텍스트 행간에 삽입한다. 3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누군가가 공창제 폐지를 언급할 때 정철성이 괄호 속에 슬쩍 혼잣말처럼 토로하는 불만 “의식이 있었다면 공창된 사회적 원인이라고 캐어보았겠지”는 바로 그러한 설명되지 않는 감성의 표현이다.

다시 정철성과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비교해본다면 허정숙, 정종명 등이 갖지 못한 경험의 지점이 정철성에게는 확실히 존재했다. 일본 유학을 경험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여러 사회주의자들의 이력과 비교해 보면 그녀를 엘리트 사회주의자로 부르는 어렵다.<sup>95)</sup> 그렇다면 그녀는 노동자 출신의 사회주의자인 것인가. 이 또한 기생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웠다. 결국 그녀가 겪은 기생으로서의 초년 경험은 사회주의 언어로서도 잘 설명되지 않는 잉여의 것이었고 또한 같은 여성이라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1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기생 강명화의 죽음에 대해 여성 지식인 나혜석이 취한 태도가 일종의 ‘훈계’였다는 점을 다시 상기

95)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기본 학력은 높은 편이었고 박헌영, 김단야, 조봉암처럼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 유학을 했던 경우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도 인정될 정도의 특별한 학력과 경력으로 인정되었다. 코민테른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특별히 사회주의 운동을 열성적으로 한 이들에게만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일종의 특권이었기 때문이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도 고명자, 김조이, 주세죽처럼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할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의 학력이나 이력들에 비추어 볼 때 정철성은 이러한 엘리트 사회주의자들과 확실히 구별된다.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한 것은 ‘여성’사회주의자로서 남성들에 대해 정철성이 취하는 자세는 상당히 모호하거나 아예 특정한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 확실히 다른 면모이다. 예컨대 아이가 딸린 소년 과부 정종명은 어머니 같은 모성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곁을 거스르지 않는 포지션을 취했고 허정숙의 경우는 자신의 욕망대로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는 보다 자유분방한 신여성으로 포지셔닝되었다. 그러나 정철성에게 ‘남성’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연애에 대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연애라는 관계가 이미 여성에게 부당한 그 어떤 것임을 그녀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누구든 자신의 출생은 물론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 지식인들의 출신 계급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나혜석이든, 허정숙이든, 정종명이든 정철성이든 그들은 자신의 출생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신학문이라는 새로운 교육을 받은 것도, 사회주의자가 된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그녀들의 의지와 선택이라기보다는 바로 시대가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도 인간에게는 각자마다 다른 삶의 표정들이 있었고 이러한 다른 삶의 표정들로 인해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의 탐구할 만한 텍스트가 된다. 그렇다면 정철성의 삶의 표정은 무엇인가. 그녀의 삶이 지어내는 표정은 식민지 시기 기생의 고통 나아가 하층민 여성의 고통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언어가 없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감성으로 분할되고 등재되어 그들을 정치적으로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연대순)

- 나혜석, 「경희」, 『여자계』 2호, 1918.  
임노월, 「未知의 世界」, 『開闢』, 1921. 6.  
나정월(나혜석), 「강명화 자살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3.7.8.  
평양일기자, 「평양기생 채금홍」, 『매일신보』, 1924. 2. 2~6.  
수가이(허정숙),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 『동아일보』, 1924.11.3.  
정철성, 「신여성이란 무엇-가치대폭락의 허물은 누구에게」, 『조선일보』, 1926.1.4.  
엄산월, 「斷髮과 自殺」, 『長恨』, 1927.1.  
정철성, 「참 자유의 길」, 『여자계』, 1927. 1.  
전난홍, 「기생도 노동자다-르가?」, 『장한』 2호, 1927.2.  
허정숙, 「근우회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과제」, 『근우』 창간호, 1929.5.  
정철성, 「의식적 각성으로부터-무산부인생활에서」, 『근우』 창간호, 1929.5.  
\_\_\_\_\_, 「계몽운동에 주력—해소론은 시기상조이다」, 『조선일보』, 1931.1.1.  
한청산, 「기생철폐론」, 『동광』, 1931.2.  
이양, 「열성과 근로의 정종명씨-근우회 여류투사」, 『삼천리』, 1931.4.  
草土, 「현대여류사상가들(3)-붉은 연애의 주인공들」, 『삼천리』, 1931.7.  
제씨(諸氏), 「이상적 가정제 기생철폐」, 『동광』, 1931.12.  
정철성, 「연애의 고민상과 그 대책」, 『조선지광』, 1931.1.  
\_\_\_\_\_, 「근우회는 무용의 장물」, 『비판』, 1932.1.  
부인기자, 「허정숙 여사의 태양광선치료원, 일대의 여류 운동가 허씨가 자연과학전당으로 진출」, 『삼천리』, 1932.9.  
정철성, 「인형전람회를 보고」, 『신계단』, 1933.1.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第5卷, 韓國學振興院, 1987.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2. 기사문

- 「화류계의 기마열-말 잘 타는 기생」, 『매일신보』, 1918.3.5.  
「정신적으로 覺醒하는 기생 사회의 신경향」, 『매일신보』, 1920.4.6.  
「부호의 독자 장병천의 자살」, 『동아일보』, 1923.10.30.  
「學生論壇(上)」, 『開闢』, 1922. 4.  
「대구 기생 풍파」, 『매일신보』, 1922.5.11.

- 「형평사 발기회」, 『동아일보』, 1923.5.12.  
 「대구역자청년 呱呱의 聲을 始發」, 『동아일보』, 1923.10.24.  
 「여성동우회 발회식」, 『동아일보』, 1924.5.22.  
 「첫 길에 선 이들(26)」, 『조선일보』, 1924.12.19.  
 「삼월회 해체」, 『동아일보』 1927.1.10.  
 「전주형평사원 대분개」, 『동아일보』, 1927. 1.22.  
 「직업부인의 고통과 불평」, 『동아일보』, 1927.5.6.  
 「義憤公憤心膽俱爽 痛快!! 가장痛快하였든 일(설문)」, 『별건곤』, 1927.8.  
 「직업부인들이 주의할 여러 가지 조건」, 『동아일보』, 1927.12.4.  
 「조선여성직업사설립」, 『동아일보』, 1928.1.15.  
 「적연비판, 꼬른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여(대담)」, 『삼천리』, 1929.9.  
 「직업부인이 되기까지-부모가 어찌업나」, 『동아일보』, 1929.11.3.  
 「설문」, 『삼천리』, 1930.1.  
 「전 조선 藝·창기 점차로 증가」, 『매일신보』, 1930.9.1.  
 「풍문첩」, 『별건곤』, 1930.12.  
 「신여성의 신년 신념사」, 『동광』 29, 1931.  
 「여류운동가의 그후」, 『삼천리』, 1934.6.  
 「평양 기생들의 꽃다운 동정금」, 『조선중앙일보』, 1934.8.30.  
 「인천권변 기생들도 의연금 모집 활동」, 『매일신보』, 1934.8.  
 「전주기생, 災民 동정 50여 원 각출」, 『매일신보』, 1934.9.14.  
 「그 뒤에 이야기 하는 諸女士의 이동 좌담회」, 『중앙』, 1935.1.  
 「평양 기생들의 600원 기부」, 『조선중앙일보』, 1935.2.1.  
 「저명인사일대기」, 『삼천리』, 1937.1.

### 3. 2차 자료

- 가와무라 미나토, 『말하는 꽃-기생』, 유재순 역, 소담출판사, 2001.  
 강영심, 「항일운동가 박차정의 생애와 투쟁」, 『여/성이론』 8호, 2003.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 『한국학연구』 38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노지승, 「식민지 시기, 여성관객의 영화 체험과 영화적 전통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2010.  
 \_\_\_\_\_, 『유혹자와 희생양: 한국 근대소설의 여성표상』, 예음, 2009.  
 루이스 A. 킬리 · 조앤 W. 스크트, 『여성·노동·가족 Women, Work and Family』, 김영·박기남·장경선 역, 후마니타스, 2007.

- 미나미 히로시(南博), 『다이쇼 문화 1905~1927: 일본 대중문화의 기원』, 정대성 역, 제이앤씨, 2007.
- 서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 서지영, 「식민지 기생연구(1): 기생집단의 근대적 재편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권 2호, 2005.
- 서형실, 「허정숙,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6호, 역사비평사, 1992.
- 성대경 엮음, 『시대를 앞서 간 사람들』, 선인, 2014.
-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1-식민지시대편』, 한홍구 역, 돌베개, 1986.
- 조기준 외,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민중서관, 1971.
- 안미경,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집, 2013.
- 윌리엄 M. 레디,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김학이 역, 문학과지성사, 2016.
-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 『일본여성사』, 어문학사, 2004.
- 이동근, 「1910년대 '妓生'의 존재 양상과 3·1 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집, 2013.
- 이서구, 「강명화 가련의 일대기」, 『세대(世代)』, 1972. 11.
- 이임하,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영희, 2015.
-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한울아카데미, 2002.
- \_\_\_\_\_, 「일제 강점기 산파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42호, 대한의사학회, 2012.
-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2007.
- 이효재, 「일제하 여성 노동문제」,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광민사, 1978.
-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4.6.
- 장인모, 「1920년대 근우회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2008.
-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 본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 2001.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1992.
- 허근옥,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1994.

❖ ABSTRACT

Gender, Labor, Emotion and Moment of Political Awakening  
- A Study on Life and Activities of Female Socialist Chung Chil-sung

Jiseung Roh

In the capitalized Joseon Dynast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most Gisaengs (female entertainers) were waiting for men who would save them from financial distress, but others chose to seize the opportunity imposed by the modern times and capitalization to transform their lives. Socialist Jung Chil-sung was one of those who utilized such opportunity to transform themselves through political awakening. The political awakening of Chung Chil-sung was the result of two factors-the historical occasion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and her personal labor experience as Gisaeng.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was not only a colossal political incident externally manifested in nationalism and but also an occasion which educed the microscopic anger of a woman named Chung Chil-sung. In the early capitalist society, women with jobs were forced to play not only vocational tasks but also to subject themselves to emotional roles of being obedient and generous. In other words, those early career women suffered feelings such as anger, shame and humiliation, when they were defenselessly exposed to gender hierarchy and gender power in the public sphere. As shown in the case of Chung Chil-sung, these emotions led to a certain political awakening. The political awakening through the labor experience and emotional problems was the fact that helped Chung Chil-sung have a concrete and realistic understanding about the issue of women's economic dependence unlike other female socialists. But, although socialism was relatively the most appropriate language to explain Chung Chil-sung's experience, what she experienced contained several element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elite socialist language. Therefore, her life paradoxically proved the need of lower-class women's lives to be divided and registered as a new emotion and to be politically visualized.

---

Key Words

Chung Chil-sung, female socialist, Gisaeng (entertainer), gender, labor, emotion,

50 비교문화연구 제43집 (2016.6.)

political awakening, March 1st Movement, economic independence, socialism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